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다니엘예언서 12:1-3	제2독서	히브리서 10:11-14, 18	복음	마르코 13:24-32
--------	------	---------------	------	-------------------	----	--------------

◎말씀 <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한 표징 >

교회 전례력 상으로 마지막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그 날과 그 시간, 곧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표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느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복음 환호송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을 대비하여 그 때를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하는 표징은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시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즉 과거에 얽매어 있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여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4-36.40)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한 표징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도움을 필요한 이들로 그들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날과 그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느님 나라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 자	전례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20일(화)	연중 제33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2,700.00 \$ 1,255.00
11월21일(수)	본토신 동정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00.00 \$ 120.00
11월22일(목)	성녀 체첼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오전7시30분	성물방 원캠페인	\$ 94.00 \$ 300.00
11월23일(금)	연중 제33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30.00 \$ 0.00
11월24일(토)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오후7시30분	합계	\$ 4,269.00
11월25일(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22성인:176명
교무금 봉헌자	김순녀.서희석(1-12월)서상훈(7-12월)한승운.임채봉(10-11월)이대원(9-10월)김기환(8-9월)이재성이경희(10월)김규철.김계숙.류정임.김병길.금외주.현익균.안강순.박병수.최이주.김옥륜.지영욱 장대석(11월)			

◎신앙생활(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양심

하느님의 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하느님의 법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느님의 법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자연법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양심을 통해 자각하게 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은 천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 신비로운 하느님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conscience)이라는 말은 그 어원상 ‘함께 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안다는 것입니다.

사목 헌장 16항에 따르면 인간은 양심 속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합니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말씀을 마음의 귀에 들려줍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 주신 법을 인간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본연의 존엄성을 지켜갈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장차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본질적인 역할은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가릴 때, 처음에는 삶에 도움이 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자연적인 삶의 차원에서는 결국 남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속한 단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선(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육신 생활을 영성 생활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육신 생활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느냐에 따라 선악을 가리는 것을 최후의 판단 원리로 삼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의식(意識) 이자, 한 인간이 오직 하느님 한 분과 머무는 지성소(至聖所)입니다. 양심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되는 하느님의 법을 놀라운 방법으로 밝혀 줍니다.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되어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염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염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양한욱.요셉, 주영만 김현순, 문영의 부부의 영혼	윤재경.알베르토	생	윤재경.알베르토의 영육간 건강	윤비비안나
			생	김영선.미카엘라.허로사의 영육간건강	아빌라데레사회

간
장
종
지

◎위령성월◎
당신은 홀로 모든 불의와 죽음을 체험하시고도
당신 사랑한다는 한 마디 말로 모두 용서해 주시기에
죽은 이들이 당신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죽은 이와 우리, 당신의 약속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소서.

마종기 노렌조 · 시인,의사/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광고) 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2월 18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p> <p>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p> <p>~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p> <p>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